

# 韓國의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

邊 衡 尹

<目 次>	
I.	序 論
II.	經濟成長
III.	雇 傭
IV.	賃 金
	1. 賃金水準
	2. 賃金格差
V.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の 關係
	1. 經濟成長과 雇傭
	2. 經濟成長과 賃金
VI.	結 論
	附 表

## I. 序 論

失業과 過少雇傭은 貧困과 悲慘의 主要原因이다. 그리고 完全하고 生産的이고 自由로이 選擇된 雇傭은 就業機會의 範圍를 넓히고 經濟成長을 加速시키며 또 低開發國의 迅速한 經濟成長과 先進國의 最貧困階級의 生活水準向上을 위한 關鍵이 된다.<sup>(1)</sup> 따라서 各國은 現在 모든 國民에게 就業의 機會를 주고 그들 生活의 安定向上을 圖謀하는 것을 政治 및 經濟政策의 根幹으로 삼고 있다. 特히 우리나라와 같이 失業者 或은 그와 類似한 不完全 就業者를 많이 갖고 있고 또 人口增加의 壓力을 不斷히 받고 있는 경우에는 雇傭의 問題는 무엇보다도 喫緊하고 重要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現在 迅速한 經濟開發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雇傭의 代價로서의 賃金은 就業者의 生活水準을 維持하는 源泉으로서의 役割과 企業의 生産費의 一部로서의 役割을 한다. 그리고 또 賃金은 한 나라의 經濟發展을 規定하며 同時에 經濟發展의 結果의 表現이기도 하다. 따라서 賃金의 問題는 雇傭의 問題와 더불어 過去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現在에 있어서도 經濟問題中的 가장 重要한 하나가 되어

(1) *International Labour Review*, Feb 1964, p. 125.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雇傭과 賃金에 關한 研究는 不幸히도 貧弱한 발판위에 서서 實際的인 結論만을 性急히 끌어 내려는 傾向을 갖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適切한 問題의 解決은 좀처럼 얻어질 수 없다. 적어도 問題의 重要性에 合當한 結論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雇傭과 賃金의 實情과 그것을 招來한 要因을 可及的 正確하게 把握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들을 經濟成長과 關聯시켜서 把握할 必要가 있다.

本論稿는 바로 이와같은 立場에서 試圖된 것이다.

以下에서는 經濟成長, 雇傭, 賃金 그리고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의 關係가 次例로 다루어 진다.

## II. 經濟成長

우리나라의 國民所得統計의 公式系列은 1953年부터 갖추어져 있다.<sup>(2)</sup> 그러나 여기서는 1960年 以後만을 다루기로 한다.

1960~1966年 期間中の 年平均經濟成長率은 6.9%이며 1962~1966年(第1次經濟開發 5年計劃) 期間中の 그것은 8.3%이다. 그리고 1人當 國民總生產增加率도 各各年 4.0%

<第2·1表>

### 產業別 國民總生產

(1965年 不變價格)

(單位: 10 億圓, %)

年 度 產 業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0~ 66平均	1962~ 66平均	1966×100 1960	1966×100 1962
	第1次產業	243.97	268.53	252.37	270.56	314.31	311.63	345.91	—	—	141.8
成長率	0.1	10.1	△6.0	7.2	16.2	△0.9	11.0	5.4	5.5	—	—
構成比	41.4	43.8	39.7	39.1	41.9	38.7	37.9	40.4	39.5	—	—
第2次產業	107.44	112.03	129.60	150.37	159.51	194.36	227.37	—	—	211.6	202.9
成長率	7.3	4.3	15.7	16.0	6.1	21.8	17.0	12.6	15.3	—	—
構成比	18.2	18.2	20.4	21.7	21.3	24.0	24.8	21.2	22.4	—	—
第3次產業	237.66	233.05	253.00	272.10	276.49	299.86	340.55	—	—	143.3	134.6
成長率	2.4	△1.9	8.6	7.5	1.5	8.5	13.6	5.7	7.9	—	—
構成比	40.4	38.0	39.9	39.2	26.8	37.3	37.3	38.4	38.1	—	—
國民總生產	589.07	613.61	634.97	693.03	750.31	805.85	913.82	—	—	155.1	143.9
成長率	2.3	4.2	3.5	9.1	8.5	7.4	13.4	6.9	8.3	—	—
構成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資料: 韓國銀行, 『調査月報』(1967. 7)

(2)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p. 8 및 p. 10 을 보면 1948年부터 系列이 있으나 公式的으로는 1953年以後의 系列만이 利用된다.

와 5.5%이다. 이것은 1960~1966 年期間中에 國民總生産이 55.1% 增加한 것을 意味하며 또 1人當國民總生産이 31.7% 增加한 것을 意味한다(第 2·1 및 2·2 表).

他國과 比較해 볼 때 이것은 相當히 높은 成長率임에는 틀림없다(第 2·3 表).

<第 2·2 表>

1人當 國民總生産  
(1965 年 不變價格)

(單位: 원, %)

年 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0~1966 平均	1962~1966 平均	1966 × 100 / 1960	1966 × 100 / 1962
1人當國民總生産	23,854	24,156	24,305	25,794	27,155	28,398	31,418	—	—	131.7	129.3
增 加 率	△0.6	1.3	0.6	6.1	5.3	4.6	10.6	4.0	5.5	—	—

資料: 韓國銀行, 『調査月報』(1967. 7)와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에서 作成.

<第 2·3 表>

各國의 成長率

(單位: %)

國 名	經濟成長率	1人當	國 名	經濟成長率	1人當
英 國(1960~1964)	3.4	2.6	아 르 젠 틴(1960~1964)	2.0	0.3
美 國( " )	4.3	2.7	칠 리( " )	3.5	1.0
프 랑 스( " )	5.4	3.8	臺 灣(1960~1963)	7.1	3.6
日 本( " )	10.8	9.7	印 度( " )	3.1	0.7
이 스 라 엘( " )	10.8	6.5	버 마( " )	4.0	1.9
파 키 스 탄( " )	2.0	3.1	말 레 이 지 아( " )	6.1	2.8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67) p. 111.

産業別 年平均成長率을 보면 1960~1966 年 期間中에는 第 1 次産業이 5.4%, 第 2 次産業이 12.6%, 第 3 次産業이 5.7%의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第 2 次産業의 成長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0~1966 年期間中에 第 1 次産業이 41.8%, 第 2 次産業이 111.6%, 第 3 次産業이 43.3% 增加한 것을 意味한다. 이에 더하여 第 2 次産業은 年次別로 마이너스의 成長을 보이기도 하는 등 그 起伏이 甚한 第 1 次産業과 달리 每年 持續的인 成長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第 2 次産業의 成長은 主로 製造業의 成長에 基因한다.

製造業의 主要業種別 成長을 보면 1962~1966 年期間中에 機械製造業이 年平均成長率 29.8%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5.4%, 22.3%, 20.9%의 年平均成長率을 各各 나타낸 化學製造業, 窯業, 金屬製造業이 次例로 차지하고 있다(第 2·4 表). 그리하여 重工業化率은 1961 年에 17.8%였던 것이 1966 年에는 24.1%로 되었다(第 2·5 表). 그러나 이것이 先

<第 2·4 表>

主要製造業別 成長率

(單位: %)

業 種	飲食品	纖 維	化 學	窯 業	金 屬	機 械	其 他	全製造業
1962~66年平均	7.4	15.8	25.4	22.3	20.9	29.8	15.2	15.0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67) p. 120.

進國에 比해서 아직 低位임은 勿論이다.

<第2·5表>

主要製造業의 構成  
(1965年不變價格에 의한 附加價值基準)

(單位: %)

業 種	年 度	1961	1966	日本(1964)
飲 食 品		26.7	18.6	7.4
織 維		26.5	27.1	7.2
化 學		5.4	8.6	13.8
窯 業		3.2	4.3	4.9
金 屬		4.3	5.3	15.9
機 械		8.1	10.2	32.5
其 他		25.8	25.9	18.3
全 製 造 業		100.0	100.0	100.0
重 化 學 工 業 化 率		17.8	24.1	62.2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67) p. 121.

이와 같은 產業別 國民總生産의 成長率의 不均衡은 產業構造 즉 國民總生産의 產業別 構成比를 變化시켰다. 第1次産業은 1960年과 1962年의 41.4%와 39.7%가 1966년에는 37.9%로 되었고 第2次産業은 1960年과 1962年의 18.2%와 20.4%가 1966년에는 24.8%로 되었고 第3次産業은 1960年과 1962年의 40.4%와 39.9%가 1966년에는 37.3%로 되었다. 그리하여 1960~1966年期間中の 平均構成比는 第1次産業이 40.4%, 第2次産業이 21.2%, 第3次産業이 38.4%가 되었고 1962~1966年期間中の 平均構成比는 第1次産業이 39.5%, 第2次産業이 22.4%, 第3次産業이 38.1%가 되었다.

끝으로 就業者 1人當 國民總生産은 1963~1966年期間中에는 年平均해서 7.3% 增加했다. 이것은 1963年에 比해서 1966年에 21%나 增加했음을 意味한다. 이것을 產業別로 보

<第2·6表>

就業者 1人當 國民總生産

(1965年不變價格)

(單位: 원, %)

產 業	年 度	1962	1963	1964	1965	1966	1963~66 平 均	1966×100 1962	1966×100 1963
第 1 次 產 業		—	53,886	61,823	62,326	69,003	—	—	128.1
增 加 率		—	—	14.7	0.8	10.7	—	—	—
第 2 次 產 業		—	169,145	173,948	172,764	197,190	—	—	116.6
增 加 率		—	—	2.8	△0.7	14.1	—	—	—
第 3 次 產 業		—	133,644	125,165	125,534	126,602	—	—	102.1
增 加 率		—	—	△6.3	△0.1	9.2	—	—	—
國 民 總 生 產		79,931	87,206	91,390	94,561	105,534	—	132.0	121.0
增 加 率		—	9.1	4.8	3.5	11.6	7.3	—	—

資料: 韓國銀行, 『調查月報』(1967. 7)와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1966)에서 作成.

던 第1次産業은 1963~1966年期間中에 28.1% 增加한데 反해서 第2次産業과 第3次産業은 各各 16.6%와 2.1% 增加하고 있다(第2·6表).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第3次産業의 增加는 特히 微微하다.

一般的으로 農産物을 主로 하는 第1次産業生産物에 對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은 其他의 財貨라든가 서비스에 對한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서 第1次産業의 比重은 漸次로 低下하는 必然性을 갖고 있다. 이 關係는 外國貿易이 없는 封鎖經濟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sup>(3)</sup>

그러나 就業者 1人當 國民總生産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第1次産業이 相對的으로 低下하여 간다고 하는 必然性은 없다. 他産業과의 均衡的 發展이 可能한 만큼 第1次産業에서 他産業으로 人口의 移動이 行해지면 産業으로서의 比重은 작아져도 第1次産業의 1人當 國民總生産은 相對的으로 低下하지 않을 것이다.

### III. 歷 備

1966年의 就業率은 92.2%이며 就業者數는 8,659人이다(第3·1表). 그나마 比較的 資料가 具備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또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第1次年度이기도 한 1962年에 比해서 總數에서는 8.7% 增加하고 있고 또 非農林漁業인 第2次産業과 第3次産業에서는 各各 35.2%, 30.0% 增加하고 있으나 農林漁業인 第1次産業에서는 도리어 3.6% 減少하고 있다(第3·2(1)表). 非農林漁業의 增加는 主로 製造業, 商業, 서비스業에서의 增加에 基因한다.

이리하여 構成比도 1962年의 第1次産業 65.2%, 第2次産業 10.7%, 第3次産業 24.1

<第3·1表>

主要經濟活動人口指標

(單位:千人)

區分 年 度	經 濟 活 動 人 口	就 業 者	失 業 者	18時間以下 就 業 者	就 業 率	失 業 率	18時間以下 就 業 率
1962	—	7,944	—	—	—	—	—
1963	8,652	7,947	705	693	91.9	8.1	8.0
1964	8,894	8,210	683	763	92.3	7.7	8.6
1965	9,199	8,522	677	674	92.6	7.4	7.3
1966	9,326	8,659	666	760	92.8	7.1	8.1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1966)

(3) 그러나 實際의 國民經濟는 國際的인 通商關係를 갖는 開放經濟이므로 多少를 不問하고 이 關係는 修正을 받는다. 例컨대 多量의 農産物을 輸出하는 農業國에서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第1次産業의 成長이 平行하게 進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美國, 濠洲, 「뉴질란드」等에서는 19世紀末頃에 그와 같은 時期가 있었다.

%에서 1966년에는 57.8%, 13.3%, 28.1%로 變化했다. 構成비에 있어서는 農林業이 斷然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製造業, 商業, 서비스業도 各各 相當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全産業의 92%나 차지하고 있다(第3·2(2)表).

<第3·2(1)表> 産業別 就業率 (單位: 千人)

年 度	全 産 業 總 數	第 1 次 産 業		第 2 次 産 業		第 3 次 産 業	
		就 業 者	構 成 比	就 業 者	構 成 比	就 業 者	構 成 比
1962	7,944	5,179	65.2	850	10.7	1,915	24.1
1963	7,947	5,022	63.2	889	11.2	2,036	25.6
1964	8,210	5,084	61.9	917	11.2	2,211	26.9
1965	8,522	5,000	58.7	1,124	13.2	2,397	28.1
1966	8,635	4,994	57.8	1,150	13.3	2,491	28.9
1966/1962(%)	108.7	96.4	—	135.3	—	130.0	—

資料: 國務總理企劃調整室,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 評價報告書』

<第3·2(2)表> 産業別 就業者 (單位: 千人)

年 度	全 産 業	農 林 漁 業		非 農 林 漁 業			第 3 次 産 業					A + B + C + D
		第 1 次 産 業		第 2 次 産 業		第 3 次 産 業						
		農 林 業 (A)	特 徴 業 (B)	礦 業 採石業 (B)	製 造 業 (B)	建 設 業	電 氣 業 개 業 (C)	商 業 (C)	運 輸 業	서 비 스 業 (D)	未 詳	
1963	7,947 (100.0)	4,821 (60.7)	200 (2.6)	59 (0.7)	631 (7.9)	200 (2.5)	25 (0.3)	785 (9.9)	117 (1.5)	1,108 (13.9)	2	7,345 (92.4)
1964	8,210 (100.0)	4,906 (59.8)	178 (2.1)	55 (0.7)	670 (8.2)	192 (2.3)	13 (0.2)	863 (10.5)	163 (2.0)	1,171 (14.4)	—	7,610 (92.9)
1965	8,522 (100.0)	4,784 (56.2)	215 (2.5)	79 (0.9)	800 (9.4)	245 (2.9)	19 (0.2)	977 (11.5)	204 (2.4)	1,197 (14.0)	—	7,758 (91.1)
1966	8,659 (100.0)	4,826 (55.7)	187 (2.2)	83 (0.9)	857 (9.9)	213 (2.5)	22 (0.2)	979 (11.3)	180 (2.1)	1,312 (15.2)	—	7,974 (92.1)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1966)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産業別就業者의 構成을 主要國의 그것과 比較하면 第1次産業就業者의 比率은 英國의 5.0%, 西獨의 23.2%, 美國의 12.5%, 「프랑스」의 36.5%, 日本의 41.0% 등과 현저한 差異를 갖고 있다. 또 第2次産業就業者의 比率은 英國의 46.4%, 西獨의 41.6%, 美國의 34.6%, 「프랑스」의 25.6%, 日本의 24.0%에 比較해서 대단히 低位에 있다. 그러나 第3次産業就業者의 比率은 英國의 48.7%, 西獨의 33.1%, 美國의 51.3%, 「프랑스」의 31.0%, 日本의 34.0%에 比較해서 相對적으로 보아 比較的 큰 편이다.<sup>(4)</sup>

産業別就業者構成에 있어서 斷然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農業이 零細規模의 家族經營

(4) 1955年 UN 『人口年鑑』에 의거한 것이다.

으로行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業, 商業도 零細의인 家族經營이 많고 製造業에 있어서도 中小規模가 그간 50%를 超過하고 있음(第 3·3表)은 周知의 事實이다. 先進國에서는 이와같은 小規模의 比重은 매우 작다(第 3·4表). 그뿐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製造業에 있어서조차 小規模經營에 있어서는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가 斷然 많다(第 3·5表).

<第 3·3表> 製造業 就業者數 規模別構成 (單位: %)

年 度	規 模	小 (5~29人)	中 (30~99人)	大 (100人 以上)
1960 (標本調査)		45.2	22.4	32.4
1963 (센서스)		36.6	20.2	43.2
1966 (센서스)		31.4	18.9	49.7

資料: 韓國產業銀行, 『鑛工業센서스報告書』 및 『鑛工業標本調査報告書』

<第 3·4表> 主要國의 製造業就業者의 規模別構成 (單位: %)

規 模	國 別	美國(1958年)	英國(1958年)	西獨(1959年)	日本(1960年)
1~ 9人		3.6	2.2	11.7	14.7
10~ 49人		13.6	9.5		28.7
50~ 99人		9.8	8.6	8.6	11.1
100~499人		30.2	31.6	28.4	21.3
500~999人		12.3	13.6	51.3	7.5
1000人 以上		30.5	34.5		16.7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 『日本社會政策學會年報』 第 12 集, p. 38.

<第 3·5表> 規模別 從事上의 地位別 製造業 就業者 (1963) (單位: 人, %)

規 模	從事上의 地位	計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	雇 傭 者
小		147,102	18,502( 91.1)	128,600
中		81,069	1,617( 7.9)	79,452
大		173,810	213( 1.0)	173,597
計		401,981	20,332(100.0)	381,649

資料: 韓國產業銀行, 『鑛工業센서스報告書』 (1963)

上述한 데서도 大體로 想像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總就業者 中에서 雇傭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작으며 1966 年에 그것은 33.3%에 不遇하다. 이에 對해서 自營業主는 36.2%를 차지하고 있고 家族從事者는 30.5%를 차지하고 있다(第 3·6(1)表). 다시 產業別로 보면 1966 年에는 第 1 次產業에서는 家族從事者가 45.9%, 自營業主가 39.9%나 차지하고 있고 第 2 次產業에서는 雇傭者가 54.5%, 自營業主가 35.7%를 차지하고

있다(第3·7表). 말하자면 第1次産業은 家族從事者·自營業主型이고 第2次産業은 雇傭者型이고 第3次産業은 雇傭者·自營業主型인 셈이다.

이와같이 近代의인 雇傭關係下에 一定의 賃金을 받고 있는 雇傭者가 全就業者의 33.3%에 不過하고 無報酬를 原則으로 하는 家族從事者가 30.5%에 達하고 스스로 肉體勞動에도 從事하는 自營業主가 36.2%에 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産業構造에 非近代의인 部門이 많음을 示唆해 준다. 英國, 美國은 姑捨하고라도 다른 나라에 比해서 우리나라의 (自營業

<第3·6(1)表> 從事上の地位別就業者 (單位:千人)

年 月	總 數			自 營 業 主			家 族 從 事 者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1962. 8	9,058 (100.0)	5,384	3,674	3,320 (36.7)	2,637	683	3,550 (39.2)	1,223	2,327
1962. 12	6,615 (100.0)	4,476	2,139	2,831 (42.8)	2,096	735	1,329 (20.1)	536	793
1963.	7,947 (100.0)	5,145	2,802	2,952 (37.1)	2,332	620	2,497 (31.4)	927	1,570
1964.	8,210 (100.0)	5,327	2,883	3,034 (37.0)	2,427	607	2,666 (32.5)	984	1,682
1965.	8,522 (100.0)	5,499	3,023	3,129 (36.7)	2,491	638	2,663 (31.2)	913	1,750
1966.	8,659 (100.0)	5,634	3,025	3,133 (36.2)	2,538	595	2,639 (30.5)	890	1,749

年 月	雇 傭								
	計			常 雇			臨 雇 및 日 雇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1962. 8	2,188 (24.1)	1,524	664	1,151 (12.7)	909	242	1,037 (11.4)	615	422
1962. 12	2,450 (36.9)	1,840	610	1,065 (16.0)	877	188	1,385 (20.9)	963	422
1963.	2,498 (31.5)	1,886	612	974 (12.3)	794	180	1,524 (19.2)	1,092	432
1964.	2,509 (30.5)	1,916	593	971 (11.8)	806	165	1,538 (18.7)	1,110	428
1965.	2,731 (32.1)	2,096	635	1,139 (13.4)	931	208	1,592 (18.7)	1,165	427
1966.	2,887 (33.3)	2,206	681	1,300 (15.0)	1,064	236	1,587 (18.3)	1,142	445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

註: ( )內는 百分比



<第3-6(2)表>

從事上の地位別 就業者

(單位：千人)

年 月	從事上の地位	計	自營業主	家族從業者	常 雇	臨 雇	日 雇
	1963. 6		9,247	3,089	3,376	988	466
1963. 12		6,407	2,447	1,623	935	600	802
1964. 6		9,895	3,305	3,700	978	614	1,298
1964. 12		6,362	2,520	1,402	983	645	812
1965. 6		10,129	3,356	3,822	1,123	718	1,110
1965. 12		6,841	2,607	1,427	1,152	743	912
1966. 6		10,392	3,371	3,875	1,283	630	1,233
1966. 12		6,960	2,643	1,454	1,394	639	830

資料：經濟企劃院，『經濟活動人口調查』

<第3-7表>

產業別 從事上の地位別 就業者の構成

(單位：%)

年 度	從事上の地位	農 林 漁 業								非 農			
		第 1 次 產 業								第 2 次			
		計	雇 傭			備				計	雇 傭		
計	自營業主		家族從業者	計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業主		家族從業者		
1963		100.0	85.1	40.3	44.8	14.9	1.3	3.0	10.6	100.0	30.0	21.7	8.3
1964		100.0	86.2	39.6	46.6	13.8	1.0	3.2	9.6	100.0	32.5	23.6	8.9
1965		100.0	85.9	39.5	46.4	14.1	1.5	4.0	8.6	100.0	31.3	22.8	8.5
1966		100.0	85.8	39.9	45.9	14.2	1.5	3.6	9.1	100.0	29.5	21.2	8.3

年 度	從事上の地位	林 漁 業											
		產 業				第 3 次 產 業							
		雇 傭				計	雇 傭				備		
計	常雇	臨雇	日雇	計	計		自營業主	家族從業者	計	常雇	臨雇	日雇	
1963		70.0	26.5	26.2	17.3	100.0	44.8	36.2	8.6	55.2	33.0	11.7	10.5
1964		67.5	24.0	23.5	20.0	100.0	46.1	36.4	9.7	53.9	31.6	9.6	12.7
1965		68.7	28.4	23.2	17.1	100.0	47.7	37.5	10.2	52.3	31.1	8.0	13.2
1966		70.5	30.9	22.5	17.1	100.0	45.5	35.7	9.8	54.5	34.8	9.1	10.6

資料：經濟企劃院，『經濟活動人口調查』(1966)

<第3-8表>

主要國の自營業主 家族從業者の比率

(單位：%)

國 名	自營業主+家族從業者 總就業者	國 名	自營業主+家族從業者 總就業者
日 本 (1956)	55.6	美 國 (1950)	17.8
필 리 핀 (1948)	51.9	벨 기 예 (1947)	28.6
아 르 제 틴 (1947)	25.4	프 랑 스 (1954)	34.4
브 라 질 (1950)	49.2	西 獨 (1950)	29.1
이 집 트 (1947)	45.1	이 탈 리 아 (1951)	38.8
캐 나 다 (1951)	22.7	英 國 (1951)	7.6

資料：篠原三代平編，『産業構造』p. 88.

主+家族從事者)÷(總就業者)가 대단히 높은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雇傭構造가 後進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第3·8表).

우리나라의 1961 年의 (完全)失業率은 7.1%이며 完全失業者數는 666 千人이다. 이와 같이 政府의 統計에 依해서 表示되는 數字는 比較的 작은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完全失業은 「調査期間中 1 時間도 일에 從事하지 않았으나 일할 意思와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求職運動을 行하고 있는 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失業保險制度가 제대로 發達하지 않고 있고 貧困한 勞動者層이 廣範하게 存在하는 곳에서는 失業率이 낮아지는 것이 도리어 當然한 일이다. 失業으로써 困窮한 勞動者는 그 最低限의 生活을 維持하기 爲해서 제아무리 勞動條件이 나쁠지라도 어떤 일에 從事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完全失業者中에는 眞正으로 救濟를 必要로 하는 가장 悲慘한 失業者는 그다지 包含되지 않고 도리어 生活에는 窮塞하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職場이 있으면 일해보고 싶다고 하는 程度의 어떤 意味에서 餘裕를 갖고 있는 者가 많이 包含되게 된다. 이런 點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完全失業者數가 比較的 작은 것은 雇傭狀態가 良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것이 極히 不良함을 나타내는 것에 不過하다.

그 뿐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各產業에 걸쳐서 廣範하게 不完全就業者層<sup>(5)</sup>이 存在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와같은 不完全한 就業狀態는 우리나라의 產業構造와 不可分の 關係에 서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 經濟, 社會構造와 密接하게 關聯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勞動力의 供給源을 都市人口層에서도 求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조차 그 主要部分을 農村에서 求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資本主義化가 늦었고 또 不徹底하고 農民離村도 매우 不完全, 不充分한데 基因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農村에는 不完全就業者가 停滯하고 있으나 不完全就業者가 많은 것은 農村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農業을 비롯하여 中小企業 및 零細經營에 低賃金就業者가 數많이 存在하고 있다.

上述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雇傭狀態는 한 極에는 完全就業者가 있고 또 다른 極에는 完全失業者가 있고 그 中間에 不完全就業者層이 廣範하게 存在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勿論 이 不完全就業者層은 그 種類도 形態도 多樣하므로 單一의 基準에 依해서 이것을

(5) 潛在失業者層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J. Robinso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 1937 및 *Essays on the Theory of Employment*, 2nd ed., 1948 등을 參照하라.

< 第 3·9 表 >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

(單位：千人)

年	從事上의 地位 月	總 數						男			
		總計	自營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主	家族從事者	常雇
1963.	6~1966. 6	9,916	3,280	3,693	1,093	607	1,242	5,953	2,641	1,184	891
1963.	12~1966. 12	6,643	2,554	1,477	1,116	657	839	4,719	2,040	617	921

年	從事上의 地位 月	子		女				分類不能詳述			
		臨雇	日雇	計	自營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男	女
1963.	6~1966. 6	436	802	3,962	639	2,510	203	171	440	—	—
1963.	12~1966. 12	465	678	1,923	515	860	196	192	161	—	—

資料：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1966)

把握하는 것은 困難하지만 몇가지 基準에서 그 測定이 行해지고 있다. (6)

現在 우리나라에 얼마큼의 不完全就業者가 存在하는가는 確實하지 않다. 그러나 第 3.9 表에 依하면 6月과 12月과 사이에 約 330萬의 差가 생기는데 이것은 大體로 우선 不完全就業者로 看做해도 無妨할 것이다. 그런데 이 差를 만들고 있는 部分은 主로 家族從事者이며 또 主로 女子就業者이다. 또 第 3·10 表에 依하면 1966 년에는 轉職 및 追加希望者 數가 約 250萬이나 된다. 이것은 어떤 意味에서이건 現在의 雇傭狀態에 不滿을 갖고 轉職 或은 追加就業을 希望하고 있으므로 一旦 不完全就業者로 看做할 수 있다. 그러나 第 3·1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8時間以下の 就業者가 76萬이다. 轉職 및 追加希望者中에 包含되어 있는 18時間以下の 者의 數인 約 28萬을 이에서 뺀 48萬을 加算한다면 亦是 이 경우에도 不完全就業者數는 約 300萬이나 된다.

그러나 完全失業者를 除外한 經濟活動人口는 모두 就業者로 看做하고 있다는 點과 自營業主中 그 所得만으로는 生活를 維持할 수 없는 者가 相當히 存在한다는 點 등을 考慮한다면 不完全就業者數는 300萬 或은 330萬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廣範한 不完全就業者層이 存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失業의 趨勢가 單純히 그 表面에 나타난 것만으로 判斷할 수 없는 深刻性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上述한 바와 같이 就業者는 그 從業上의 地位에 依해서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雇傭者의 셋으로 區分된다. 그 中에서 雇傭者는 말하자면 近代의 勞動關係에 依據한 就業者이며

(6) 主로 「所得水準」基準과 「就業者의 主觀的인 意識」基準이 널리 利用된다. 後者에 대해서는 說明이 行해지므로 여기서는 前者에 대해서만 言及해 둔다. 「所得水準」基準이란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에 대해서는 生活保護家口의 1人當就業者의 年所得을 얼마로 定하고 그것을 基準으로하여 以下の 低所得者를 不完全就業者로 다루고 雇傭者에 대해서는 月額 얼마로 定하고 그 以下の 勞動者를 不完全就業者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그 比率이 높을수록 近代的인 雇傭構造를 가진 社會로 볼 수 있다.<sup>(7)</sup> 事實 典型的인 資本主義國인 英國에서는 就業中에서 차지하는 家族從事者의 比率은 0.2%에 不過하며 雇傭者의 比率은 90%에 達하고 있다.<sup>(8)</sup>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6 年에 就業者中에서 차지하는 家族從事者의 比率은 30.5% 나 되고 雇傭者의 比率은 33.3%에 不過하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雇傭構造는 非近代的이다. 그러나 近代的인 産業部門의 雇傭構造는 比較的인 近代的인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雇傭構造도 二重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는 300 萬을 훨씬 넘는 不完全就業者層이 存在한다. 어떻든 이들이 非近代的인 就業形態를 갖고있는 農業, 中小企業속에 廣範하게 存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英國등의 歐美先進國에는 失業은 이와같은 潛在失業의 形態로 나타나지 않고 顯在失業으로 나타나며 그 比率도 3~4%程度이다. 이 點에서도 우리나라의 雇傭構造는 非近代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다음의 IV-2에서 說明되지만 賃金格差가 크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雇傭構造가 非近代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結局 雇傭者의 比率이 낮은 것, 不完全就業者層이 많은 것, 賃金格差가 큰 것의 세가지는 우리나라의 雇傭構造의 非近代性 乃至 後進性을 나타내는 指標이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雇傭構造의 特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sup>(9)</sup>

<第 3·10 表>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

(單位:千人)

年 度	時 間	就業者 總數	總計	轉 職 希 望 者							追 加 就 業 希 望 者							非希 望者
				計	1-18	19-29	30-34	35-39	40-49	50時 間以上	計	1-18	19-29	30-34	35-39	40-49	50時 間以上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時間	
1963		7,947	—	—	—	—	—	—	1,878	216	263	168	164	357	708	6,068		
1964		8,210	—	—	—	—	—	—	1,959	173	235	141	139	356	916	6,251		
1965		8,522	—	—	—	—	—	—	2,080	176	264	165	165	417	893	6,440		
1966		8,659	2,524	1,254	145	172	105	85	219	528	1,270	139	198	123	96	260	454	6,135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査』(1966)

(7) 이와같이 雇傭構造의 近代化의 基準으로서는 「賃金取得雇傭」이 資料關係로 널리 利用된다. (International Labour Review, Dec. 1964, pp. 547—548)

(8) 家族從事者의 比率은 其他의 歐美諸國에서는 大體로 10%以下이다.

(9) 雇傭構造는 産業聯關關係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韓國銀行, 1960 年 및 1963 年의 『韓國經濟의 産業聯關分析』을 參照하라.

## IV. 賃 金

### 1. 賃金水準

우리나라 經濟의 特徵이라면 보통 過剩人口, 貧弱한 資源, 큰 貿易依存度, 絶對的 低位의 蓄積水準 등이 들어진다. 그러나 이 밖에 低賃金도 우리나라 經濟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第4·1·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매우 低位에 머물러 있다(以下에서는 賃金은 生産從業員의 給與의 意味로 使用된다). 大體로 鑛業과 製造業을 平均한 값에서 보면 1966년에는 勞動者의 賃金은 月當 7千2百餘원에 不過하다. 따라서 1個月을 勞動해서 겨우 쌀 약 2가마 밖에 못버는 셈이 된다. 그 뿐이 아니다. 1966年 1月 12日字 京鄕新聞의 社說을 보면 勞動者의 賃金이 얼마나 낮은 水準의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生活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짐사리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第4·1·1表> 鑛業 및 製造業의 賃金(月當) (單位: 원)

年 度	鑛 業	製 造 業	年 度	鑛 業	製 造 業
1957	2,640	2,030	1962	4,860	2,990
1958	2,700	2,170	1963	5,320	3,310
1959	3,220	2,350	1964	6,220	4,010
1960	3,900	2,600	1965	7,680	4,680
1961	4,400	2,840	1966	8,920	5,480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1967)

의 勞動者들의 大部分은 現在 自己 혼자만의 生活조차 支撐해 나갈 수 없는 程度의 低賃金을 強要當하고 있다. 原則的으로 말한다면 一國民의 社會的 文化的 水準의 發達程度에 따라서 一般的인 生活水準이 定해지는 것이며 賃金은 이 水準의 生活을 維持할 수 있게 하는 程度로 定해지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生活水準은 歐美諸國 日本等に 比해서 훨씬 낮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水準을 保障할만한 賃金조차도 支拂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그러나 韓國의 低賃金이 意味하는 바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첫째로 國際的으로 比較해 볼 경우에 우리나라의 賃金은 顯著히 低位에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先進國이나 日本과 같은 나라와는 比較할 必要조차도 없으며 (第4·1·2表) 다음 第4·1·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에 있어서의 賃金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低所得國의 그룹에 屬하고 있는 나라와 比較해 보아도 低位에 있음을 알 것이다. 우리나라

<第 4·1·2 表>

賃金の 國際比較 (1959年)

(單位: 원)

國 別	時間當賃金	韓國을 1로 한 倍率	國 別	時間當賃會	韓國을 1로 한 倍率
美 國	284.7	24.1	이 탈 리 아	46.0	3.9
英 國*	106.4	9.0	日 本**	37.5	3.2
獨 逸*	85.3	7.2	韓 國**	11.8	1
프 랑 스	61.9	5.2			

資料: 『UN 統計年鑑』(1961)에서 作成.

註: \* 男子만의 賃金

\*\* 1 個月 25 日, 1 日 8 時間으로 計算하였음.

<第 4·1·3 表>

賃金の 國際比較 (男女平均月當)

(製造業部門) 1959年

第 1 群 1 人當國民所得 100 弗 未滿	第 2 群 1 人當 國民所得 100 弗 以上 200 弗 未滿
버 마 \$ 24.3 (1958年)	실 룬 27.1
中 國(臺灣) 17.2	韓 國 18.1
印 度 23.4	필 리 핀 32.7
파 키 스 탄 17.3 (1958年)	日 本 57.8
	베 트 남 27.3

資料: 『UN 統計年鑑』(1961)에서 作成.

와 同一한 所得國 그룹에 屬하는 「필리핀」이나 「실론」에 比해서도 낮고 우리나라 보다 낮은 所得國 그룹에 屬하는 印度 「파키스탄」 등과 大同小異하다. 이 數字는 公定換率에 의거하여 換算한 것이므로 결코 精度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國際적으로 본 低賃金を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賃金은 그 絕對額에 있어서 낮을 뿐 아니라 相對的으로도 낮음을 意味한다. 第 4·1·4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8 年에 製造業에 있어서의 附加價值中 賃金 및 給料가 차지하는 比率은 日本이 41 % 인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9 年 4 月 부터 1959 年 3

<第 4·1·4 表>

ECAFE 諸國의 賃金 및 給料

國 名	(A) 賃金 및 給料	(B) 附加價值	(A)/(B)	備 考
	(100萬 各國 通貨單位)			
버 마 (kyat)	116.0	360.8	32%	1957/1958
中 國 (NT\$)	1,093.5	4,410.9	24	1954
印 度 (rupee)	2,681.2	4,989.8	55	1958
파 키 스 탄 (rupee)	461.7	1,339.0	34	1958
실 룬 (rupee)	61.1	202.4	30	1951
韓 國 (원)	5,765.4	15,754.9	37	1958. 4/1959. 3
필 리 핀 (peso)	379.5	1,140.0	33	1957
日 本 (yen)	1,171,366	2,865,352	41	1958

資料: 『UN 統計年鑑』(1961)

月까지의 1年間に 37%로서 매우 낮다.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의賃金은 그 低水準에 의하여 特徵지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低賃金은 무엇에 基因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低賃金を 뒷받침하는 것의 하나는 農村을 中心으로 하는 龐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 즉 完全失業者와 不完全就業者層의 存在이다.

이미 Ⅲ에서 본 바와 같이 完全失業者數는 70萬을 또 不完全就業者數는 300萬을 훨씬 넘는다. 美國이라든가 英國에 있어서와 같이 總就業者數의 90% 内外가 雇傭者이고 失業者가 顯在化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라서 이와 같은 龐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는 自然히 우리나라의 賃金構造에 獨特한 歪曲을 招來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龐大한 過剩勞動力은 年年 擴大되어 간다. 왜냐하면 經濟成長에 따르는 就業機會의 擴張보다도 人口增加에 따르는 經濟活動人口의 增大가 더 큰 것이 現在의 우리나라의 實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龐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는 勞動市場을 恒常 購買者市場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低賃金の 一般的인 基盤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賃金水準을 引下하는 作用을 하는 이와 같은 勞動力의 過剩外에 우리나라의 勞動力構成이 갖는 前近代性이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을 沮止하도록 作用하여 一部에 있어서의 極端한 低賃金を 만들어 내고 있는 點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農村의 경우에는 過剩勞動力이 存在한다. 그러나 그 勞動力의 全部가 農村을 脫出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農閑期에 있어서는 分明히 過剩이지만 農繁期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農繁期에는 賃勞動을 行하고 있는 사람도 불려 들이는 경우가 많겠는데 이들의 勞動力은 賃勞動을 行한다고 해도 그 就業先에는 一定한 制限이 있으며 都市의 工場 등에서는 日雇 臨時工 혹은 季節的인 土木工事 또는 時間的 制約이 적은 地方的인 零細工業 등이 아니면 就業할 수 없는 結果가 된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tie-up 된」 勞動力은 勞動力으로서는 不完全한 것이며 自然히 低賃金を 甘受하지 않을 수 없다. 地方的 零細工業에 있어서는 此種의 不完全勞動力에 依存하여 그 極端한 低賃金を 經營의 基礎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있어서는 많은 農家の 女子勞動力이 基礎가 되어 있고 賃金の 支拂形態도 成果拂制(能率給制)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事態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賃金を 한층 더 不安定한 것으로 만든다. 故로 「tie-up 된」 不完全한 勞動力은 大企業의 勞動力에 附與되어 있는 最低의 生活保障도 附與받지 못한 채로 더욱 더 無理한 勞動을 強要받고 있

는 結果가 된다.

또 低賃金を 招來하는 勞動市場의 特殊性으로서는 輕工業中心의 工業構成에서 오는 勞動需要의 性格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例컨대 紡織業이라든가 製絲業을 생각해 보자. 거기서 일하고 있는 勞動者의 主力은 年少의 婦女勞動者, 所謂 女工이다. 典型的인 경우는 한 집의 主된 生計는 兩親이 營爲하는 農業에 의해서 支持되고 그 女子는 工場에서 일하는 경우다. 紡織工場이라든가 製絲工場에서 받는 賃金은 兩親의 農業收入을 補足하기 위한 것이든가, 경우에 따라서 兩親에 依存하지 않고 自己 스스로의 收入으로 結婚準備를 하려고 하는 自然的인 意圖에 依據하는 것이다. 어떻든 家計補助的 勞動者라는 名稱으로 總括되는 部類의 勞動者가 우리나라 輕工業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第4·1·5表 및 第4·1·6表).

이와 같은 型의 勞動者는 工場에서 數年 일하면 退職해서 結婚하는 것이 通例이다. 年功序列型의 즉 年齡과 勤續年限이 極히 重要的 役割을 하는 賃金이 支配하는 우리나라의 產業界에서는 이들 女工의 大部分은 不斷히 初任給 혹은 初任給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賃金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女學校程度를 卒業한 女子가 次例로 새로운 供給源이 되어 結婚을 위해서 退職해 가는 勞動者의 뒤를 메꾸어 간다.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을 極도로 낮게 固定시킨 事情으로서 家計補助的 勞動者가 工場勞動者中的 重要的 部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終身雇傭制度도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을 妨害하고 있다.

<第4·1·5表>

製 造 業 의 構 成

(1960年 不變價格에 依한 附加價值基準),

(單位: %)

業 種		年 度	1960	1963	1966
飲 食	品		26.1	21.0	19.4
織	維		19.2	15.2	16.2
化	學		6.8	10.9	11.5
窯	業		5.0	6.4	8.1
金	屬		4.9	5.6	5.3
機	械		7.2	10.5	12.2
其	他		30.8	30.4	27.3
合	計		100.0	100.0	100.0
重 化 學 工 業 化 率			18.9	27.0	29.0

資料: 韓國產業銀行, 『韓國의 産業(下)』 (1966)

註: (1) 1966年은 暫定推計에 依함

(2) 重化學工業에는 製造業 中分類중 化學製品, 石油 및 石炭製品, 第1次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器, 輸送用機器 등이 包含됨



〈第 4·1·6 表〉

제조업의 男女別分布 (1963年)

(單位：人)

業 種	從 業 員 總 數			生 產 從 業 員		
	計	男	女	計	男	女
飲 食 品	51,936	39,018	12,912	40,466	28,684	11,782
織 維	109,456	28,732	80,724	101,266	22,208	79,058
고 무	18,951	7,682	11,290	18,056	6,893	11,163
化 學	40,559	30,372	10,187	32,092	22,913	9,179
窯 業	23,651	19,598	4,058	18,639	15,369	3,270
金 屬	28,178	26,350	1,828	24,245	22,702	1,543
機 械	44,768	41,556	4,042	38,025	35,207	2,818
其 他	84,482	61,268	22,384	68,853	47,660	21,193
計	401,981	254,571	147,410	341,642	201,636	140,006

資料：韓國產業銀行, 『鑛工業센서스報告書』

이와 같은 勞動力側 要因 外에 資本側으로부터 低賃金を 招來하는 要因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資本側의 勞動者의 採用에 있어서 限定된 範圍內에서의 緣故募集에 依存하는 例가 많은 것이다. 이것은 오랜 歷史를 갖는 大企業에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事例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中小企業에 있어서일수록 顯著하다. 지금 近代의인 大工場인 釜山에 所在하는 某工場의 職員採用方法을 例로 들어 보면 大學出身의 技術者를 除外한 其他의 職員은 거의가 限定된 緣故募集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 특히 零細企業에 있어서는 이 傾向은 一層 더 強하다고 생각해도 無妨할 것이다. 勞動者가 緣故採用되는 結果는 雇傭 그 自體가 一種의 恩惠로서의 性格을 띤다. 近代의인 勞資關係가 身分이라는 恩惠의 結緣으로 代置되어 버린다. 事實 零細企業의 雇傭者中에는 經營에 반드시 必要치는 않는 者도 包含되어 있는 例가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例外를 除外하고서 생각해도 恩惠로서 附與된 雇傭에 있어서는 賃金を 經營의 一方的인 決定에 委任해 버리게 됨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이와같이 해서 定해진 中小企業의 低賃금은 全體로서의 賃金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重壓이 되어 及其也는 大企業에도 波及해서 例컨대 그 初任給을 引下하게 된다.

上述한 바에 더하여 家計가 低賃金を 強要當할 때 使用하는 그것의 打開策이 그 家計中에서 새로운 低賃金勞動者를 또 보내는 것 즉 家計의 低賃金の 再生産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韓國의 賃금은 또 低位로 維持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零細農家의 家計가 急激히 賃勞動者化함으로써 生活을 支撐해 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低賃金の 基盤은 貧困한 사람들의 生活속에서도 求할 수 있음을 理解할 수 있

을 것이다. 結局 貧困의 惡循環도 바로 韓國의 低賃金의 基盤이 되어 있는 셈이다.

以上과 같은 諸要因外에 끝으로 한 두가지 더 言及하지 않으면 안될 要因이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의 食生活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米穀의 價格이 그간의 低物價政策으로 해서 낮게 維持됨으로써 그 結果 勞動者의 生活費 (韓國의 경우에는 生存費라고 함이 더 妥當할 것이다) 或은 勞動의 再生産費가 낮게 維持되게 되어 이 生活費에 의해서 決定되는 賃金水準이 低位로 維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0)</sup> 事實 物價變動의 先導的 役割을 하는 米穀의 價格이 低位로 維持되지 않았던들 오늘과 같은 低水準으로 賃금이 維持되었을는지 매우 疑心스럽다. 이제 米穀의 價格과 賃金の 趨勢를 보여 주는 表를 들면 第4·1·7表와 같다.

그 들은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지 않거나 結成되어 있다해도 勞動組合의 힘이 微弱한 것이다. 勞動組合에 의한 團體交涉이 活潑하면 賃金水準은 上方으로 움직이기 쉬우며 下方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賃金の 下方硬直性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지 않거나 或은 있다해도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第4·1·7表> 米價 및 製造業 賃金の 趨勢 (單位: 원)

年	度	米	價	賃	金
1957			361		2,030
1958			297		2,170
1959			266		2,350
1960			304		2,600
1961			367		2,840
1962			377		2,990
1963			602		3,310
1964			736		4,010
1965			701		4,680
1966			—		5,480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1967) p. 315.

自然히 低賃金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勞動組合의 結成狀況을 보면 第4·1·8表와 같다. 이에서 大體로 結成된 勞動組合의 數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過去の 例에 비추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結成된 勞動組合 마저 勞動者가 無權利狀態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제구실을 못하거나 或은 幹部들이 政治的으로 利用됨으로 해서 本來의 使命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0) 勞動供給이 支配的인 때에는 이와 같은 古典派的 見解가 妥當하며 一旦 勞動需要가 급격히 增加하여 勞動需給의 밸런스가 變할 때에야 비로소 新古典派理論이 妥當하는 範圍가 擴大되어 온다.

〈第 4·1·8 表〉 韓國勞動組合의 支部結成 狀況

年 度	區 分	計	鐵道	纖維	鑛山	電力	外國機關 從業員	遞信	運輸	海上	金融	專賣	化學	埠頭	聯合	出版	自動車	金屬
1961. 12. 31	現在	72	—	8	7	5	—	—	17	7	—	1	11	9	5	—	—	2
1962. 12. 31	〃	327	10	30	40	25	10	3	41	22	7	14	55	27	30	—	—	13
1963. 12. 31	〃	607	15	46	121	36	21	4	63	39	15	18	90	43	57	2	7	30
1964. 12. 31	〃	341	11	23	46	30	13	4	13	15	10	29	60	18	31	9	14	15
1965. 12. 31	〃	356	12	23	49	29	16	4	13	15	11	30	65	18	33	8	14	16
1966. 12. 31	〃	359	12	24	56	26	16	4	13	14	12	32	54	18	41	9	15	13

資料：勞動廳 勞動局

## 2. 賃 金 格 差

바로앞에서 우리는 勞動力側의 要因, 그것을 利用하는 資本側의 要因, 그리고 其他의 諸要因이 합쳐서 우리나라의 賃金を 低水準으로 維持하고 있음을 考察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賃金은 低水準인 同時에 規模別로나 業種別로나 相當히 큰 格差를 가지고 있다.

規模別 賃金格差를 보면 第 4·2·1 表와 같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小企業의 賃金은 大企業의 그것의 約 54%밖에 안된다. (11)

〈第 4·2·1 表〉 鑛業 및 製造業의 規模別 賃金 (月當)(1966年) (單位：원, %)

規 模	鑛 業	製 造 業	平 均
30— 49人	5,907 (53.6)	4,312(58.4)	4,410(53.5)
50— 99〃	5,438	4,839	4,905
100—199〃	6,901	5,835	6,202
200—499〃	6,473	5,928	5,987
500人 以上	11,568(100.0)	7,385(100.0)	8,240(100.0)

資料：韓國生產性本部, 『生產性研究』 第 64 輯에서 作成.

註：( )内는 百分比.

그러면 이와 같은 規模別 賃金格差의 要因은 무엇인가? 우선 그 要因으로서 生産性格差의 存在를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大企業의 生産性이 小企業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生産性이 높으면 賃金도 높다는 것, 換言하면 兩者가 正 或은 順의 相關關係를 갖는다는 것은

$$\frac{W}{N} = \frac{W}{Y} \cdot \frac{Y}{N}$$

(11) 藤木武에 의하면 製造業의 경우에는 大企業에 대한 小·零細企業의 賃金은 90% 내지 80%인 나라가 많은데 日本에서는 50~40%라는 低水準이라 한다. 『エコノミスト』, 1961年 8月 8日 號,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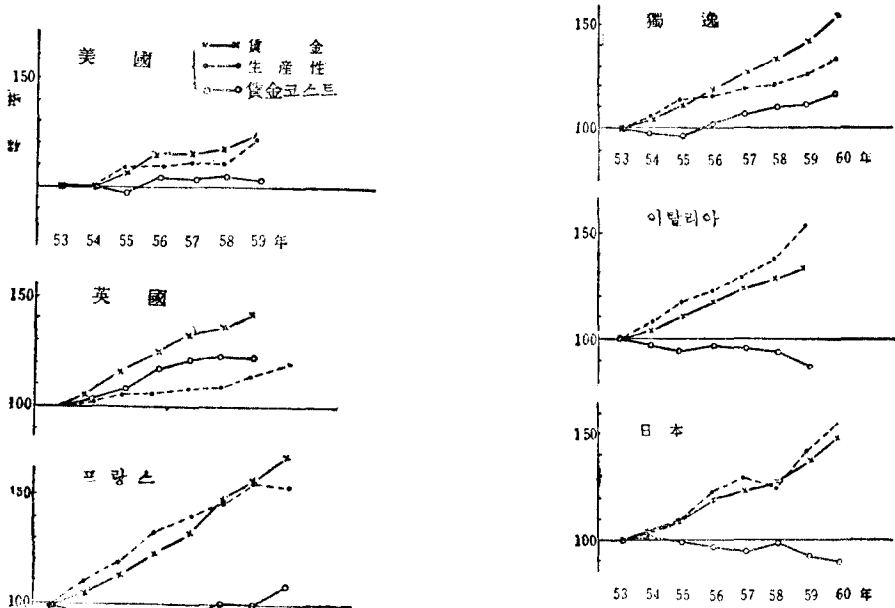
但  $\frac{W}{N} = 1 \text{人當賃金}, \frac{W}{Y} = \text{賃金分配率}$

$\frac{Y}{N} = \text{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12)}$

에서 證明되는 바이지만 다음의 第4·2·1圖도 그것을 實證해 준다.

規模別 賃金格差의 둘째 要因으로서는 中小企業의 特殊性을 들 수 있다. 中小企業은 地方的인 特殊한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市場이란 點에서도 大企業과의 競合問題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封鎖的인 企業은 自然히 他企業과는 隔離된 生産構造를 가지며 獨自的인 低賃金이 可能하게 된다. 或은 同種의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경우에도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는 各種의 支配關係가 成立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中小企業은 不可不 不利한 條件을 甘受치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不利에 對備하기 위하여는 亦是 勞動者의 犧牲에 의한 生産費의 切下가 必要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規模別 賃金格差의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存在하는 勞動力의 質的 差異를 들 수 있다. 勞動市場에서의 熾烈한 競爭이 大企業에는 良質의 勞動力을 雇傭시키게 하고 中小企業에는 그 나머지의 勞動力을 雇傭시키게 하는 結果를 낳



<第4·2·1圖> 賃金, 生産性의 國際比較 (1953=100)

(12) 純生産性이라고도 한다. 이에 對해서 價値生産性 즉 (出荷額)÷(從業員數)는 粗生産性이라고 한다.

으며 雇傭된 後의 經路에도 또 差異를 만든다. 大體로 大企業에 있어서의 新規採用者는 未就業者 農村出身者가 많은데 反해서 小企業이 될수록 經驗者 乃至 都市의 商業·서비스業 出身者의 率이 높아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즉 大企業은 새로운 勞動力을 自己가 要求하는 近代의 勞働者로 養成할 수 있는 立場에 놓여 있는데 反해서 小企業은 도리어 他企業에서 養成되어 一旦 離職한 사람들을 多量으로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처음부터 小工場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勞動力으로서는 不利한 條件을 갖고 있는 셈이며 以後의 養成도 不充分한 채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初任給은 거의 같다고 해도 그 以後의 養成過程에서 勞動力의 質에 差異가 생겨 이것이 賃金水準에 反映되는 것이 事實이다.

<第 4·2·2 表>

業種別賃金(月當) (1966年)

(單位: 원, %)

業 種	賃 金	業 種	賃 金
石炭鑛業	10,480(100.0)	皮革 및 同製品製造業	3,500 (41.8)
金屬鑛業	7,170	고무製品製造業	5,060
非金屬鑛業	4,870 (46.4)	化學製造業	5,380
鑛業平均	8,920	石油 및 石炭製品製造業	6,160
		유리·土石製品製造業	6,900
食料品製造業	5,400	第 1 次金屬製品製造業	8,020
飲料品製造業	7,380	金屬製品製造業	5,410
紡織業	4,790	機械製造業	4,510
製材 및 木製品製造業	6,860	電氣機械製造業	6,250
紙類 및 紙類製品製造業	5,740	輸送用機械製造業	5,770
印刷 및 出版業	8,350(100.0)	(別掲以外의 製造業)	(3,490)
		製造業平均	5,480

資料: 韓國銀行, 『調査月報』 (1967. 8)

다음에 業種別 賃金格차를 보면 第 4·2·2 表와 같다. 이에 의하면 鑛業에서는 石炭鑛業이 그리고 製造業에서는 印刷 및 出版業, 유리·土石製品製造業, 第 1 次金屬製品製造業, 電氣機械製造業, 飲料品製造業, 製材 및 木製品製造業 등이 높은 賃金を 갖고 있는 業種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反對로 鑛業에서는 非金屬鑛業이 그리고 製造業에서는 紡織業, 皮革 및 同製品製造業, 機械製造業 등이 낮은 賃金を 갖고 있는 業種으로 되어 있다. 이에서 大體로 賃금이 높은 業種은 資本集約的인 生産技術과 從業員의 熟練勞働을 必要로 하는 部門이며 다른 한편 賃금이 낮은 業種은 勞動集約的인 生産技術과 從業員의 單純勞働을 必要로 하는 (13) 部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13) 따라서 이와 같은 産業에서는 不熟練勞働者나 婦女子 및 年少從業員이 從業員의 大部分을 차지한다.

業種의 賃金은 높은 賃金의 그것의 50~40% 밖에 안된다. (14) (15)

### V.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の 關係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の 關係는 經濟成長과 雇傭의 關係, 經濟成長과 賃金の 關係의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6)

#### 1. 經濟成長과 雇傭

1人當 國民所得成長率을  $\alpha$ , 人口增加率을  $n$ 라고 하면 經濟成長率  $G$ 는

$$G = \alpha + n \quad (5 \cdot 1 \cdot 1)$$

으로 된다. 勿論 人口增加率은 그대로 雇傭增加率이 되지 않는다. (17)

그러나 人口增加率과 雇傭增加率이 같다고 한다면 經濟成長率과 雇傭增加率이 並行한

<第 5·1·1 表>

主要國 經濟成長率과 雇傭增加率

(單位: %)

國名	經濟成長率 1952~1961年平均	全產業雇傭增加率 1952~1961年平均	製造業生產增加率 (1961/1952年)	製造業雇傭增加率 (1961/1952年)
美國	2.8	1.0	28.3	△ 9.5
英國	2.7	0.5	37.7	11.0
캐나다	—	—	28.7	△ 1.0
프랑스	4.2	0.7	46.1	5.0
西獨	7.1	3.9	15.6	46.4
이탈리아	6.0	4.7	98.9	12.0
아일랜드	—	—	47.2	11.7
노르웨이	—	—	70.5	8.0
日本	10.5	5.6	325.5	69.0

資料: 『日本社會政策學會年報』第 12 集, p. 24.

다는 것 즉 經濟成長率이 커지면 雇傭增加率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 5·1·1 表는 바로 이 事實을 立證해 주고 있다. 이 表에 依하면 經濟成長率은 日本의 10.5%가 가장 높고 英國의 2.7%가 가장 낮은데 全產業의 雇傭增加率도 日本의 5.6%가

(14) 藤本武에 의하면 높은 業種에 對한 낮은 業種의 賃金은 先進國에 있어서는 65~55%라고 한다 (前掲書, p. 46). 그러나 日本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거의 同一하다.

(15) 賃金格差에는 이 밖에 性別, 地域別格差가 있다. K. Taira는 이와는 달리 賃金格差로 勞動市場의 不完全에 基因하는 賃金格差, 性別·年齡別·地位 및 其他別 賃金格差, 職業別 賃金格差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International Labour Review, March 1966, pp. 281—282)

(16) 勿論 이밖의 雇傭과 賃金の 關係를 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은 다음의 1에서 보는 바와같이 雇傭增加, 雇傭構造의 改善을 통해서 賃金の 上昇을 가져올 것이므로 雇傭과 賃金の 關係는 經濟成長과 雇傭構造 및 經濟成長과 賃金으로 解消시킬 수 있을 것이다.

(17) 一般적으로는 1人當 所得稼得力의 增加와 함께 扶養力이 增加하므로 就業率은 漸次 低下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높고 英國의 0.7%가 가장 낮다.<sup>(18)</sup>

勿論 勞動의 生産性的 上昇으로 因해서 經濟成長率이 增加해도 雇傭은 도리어 減少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産雇向上과 雇傭增加를 同時に 進行시킬 수 있다. 美國에서는 生産性的 向上이 있어도 雇傭의 減少는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高水準의 技術을 가짐으로써 國際競爭에서 優位를 維持하고 있다.

다음에 經濟成長에 따라서 第1次産業人口(第1次産業就業人口)의 比重은 低下하고 第2次, 第3次産業 特히 第3次産業人口가 增大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sup>(19)</sup> 이것은 第5·1·2表에서도 알 수 있다.

<第5·1·2表> 主要國의 産業別 人口構成의 推移 (單位: %)

英國 I II III	美國 I II III	이탈리아 I II III	스웨덴 I II III	日本 I II III
(1881)13-50-37	(1870)53-22-25	(1881) 57-26-17	(1910)48-27-25	(1872)77- 4-19
(1921) 7-49-44	(1920)23-33-39	(1921) 56-24-20	(1920)41-32-27	(1920)54-21-25
(1931) 6-47-47	(1940)19-35-46	(1936) 48-29-23	(1940)29-36-35	(1940)44-26-30
(1951) 5-49-46	(1950)13-37-50	(1954) 41-32-27	(1950)21-41-38	(1955)41-24-35

資料: I.L.O., *International Labour Review*, May 1956.

註: I, II, III은 各各 第1,2,3次産業을 表示한다.

以上이 經濟成長과 雇傭의 關係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2-1966年期間中에 國民總生産이 43.9% 增加한데 對해서 就業者는 同期中에 8.7% 밖에 增加하지 못하고 있다(第2·1表 및 第3·2(1)表). 이것을 다시 産業別로 보면 附加價値가 第1次産業에서는 37.1%, 第2次産業에서는 102.4%, 第3次産業에서는 34.6% 增加한데 對해서 就業者는 第1次産業에서는 3.6% 減少하고 있고 第2次, 第3次産業에서는 各各 35.3%, 30.0% 增加하고 있다.

그간의 經濟成長은 雇傭의 增加를 隨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에 比해서 雇傭增加는 極히 微微하다.

第3·2(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年의 第1次産業 65.2%, 第2次産業 10.7% 第3次産業 24.1% 라는 就業者構成이 1966년에는 第1次産業 57.8%, 第2次産業 13.3% 第3次産業 28.9%로 되어 第2次 및 第3次産業人口率이 높아진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第3次産業中에는 商業 其他의 家族經營體가 많으며 就業者中에 多

(18) 『日本社會政策學會年報』第12集, pp. 24-25.

(19) 各國의 國民所得統計라든가 勞動力統計를 驅使하여 世界經濟的 規模에 있어서 이 傾向을 立證한 사람은 C. Clark 이므로 이것을 Clark 法則이라고도 한다.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51).

數의 家族從事者가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第3次産業人口率이 높은 것을 가지고 곧 西歐式으로 雇傭構造의 近代化의 指標로 看做하는 데에는 問題가 있다.

一般적으로 全就業者中에서 차지하는 雇傭者(賃金勞動者)의 比率이 높을수록 雇傭構造는 近代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故로 雇傭構造는 近代化의 進展狀態를 보다 正確하게 알기 爲해서 全産業을 雇傭者比率이 80%以上の 産業(I), 雇傭者比率이 20%以下の 産業(III) 및 그 中間에 位置하는 産業(II)의 세가지와 常用雇傭者比率이 40%以上の 産業(I'), 常用雇傭者比率이 10%以下の 産業(III') 및 그 中間에 位置하는 産業(II')의 세가지로 各各 나누어서 各産業者의 變化를 考察하기로 한다. (第5·1·3表) 建設業만이 第1分類와 第2分類에서 差異를 갖는다.

<第5·1·3(1)表> 就業者에 대한 雇傭者 比率 (單位: %)

年度	農 業	鑛 業	製 造 業	建 築 業	電 氣 業	商 業	運 輸 業	서비스業
1963	14.9	91.3	63.6	83.1	84.0	11.3	82.1	82.7
1964	13.8	96.4	60.2	84.5	85.8	10.0	80.1	82.3
1965	14.1	96.3	64.0	77.6	89.5	11.7	79.0	80.1
1966	14.2	95.2	64.8	84.0	90.9	13.8	78.9	80.9
平 均	14.3	94.8	63.2	82.3	87.6	11.7	80.0	81.5

資料: 附表에서 作成.

<第5·1·3(2)表> 就業者에 대한 常雇 比率 (單位: %)

年度	農 業	鑛 業	製 造 業	建 設 業	電 氣 業	商 業	運 輸 業	서비스業
1963	1.3	53.4	31.0	4.5	52.0	6.2	54.7	49.2
1964	1.0	48.2	27.4	5.2	64.4	4.4	41.6	49.9
1965	1.5	39.5	34.6	5.7	52.7	6.8	44.6	47.8
1966	1.5	32.5	36.6	7.0	63.7	8.1	52.2	51.7
平 均	1.3	43.4	32.4	5.6	58.2	6.4	48.3	49.7

資料: 附表에서 作成.

建設業은 第1分類에서는 産業I에 屬했으나 第2分類에서는 産業III'에 屬한다. 이것은 建設業이 主로 日雇를 利用하는 産業이라는데 基因한다. 建設業에서는 日雇는 平均해서 雇傭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에 대한 1966년의 就業者의 增加率은 産業I에서는 19.9%인데 대해서 産業II에서는 35.6%, 産業III에서는 3%이다. (第5·1·4(1)表) 또 産業I'에서는 그것이 22.0%인데 대해서 産業II'에서는 35.6%, 産業III'에서는 3.1%이다. (第5·1·4(2)表)



<第5·1·4(1)表> 産業別雇傭者 (單位:千人)

年 度	産 業	I (鑛+建+電+運+서)	II (製 造)	III (農 + 商)
1963		1,510	632	5,815
1964		1,597	671	5,947
1965		1,734	792	5,977
1966		1,810	852	5,992
(1966/1963) × 100		119.9	135.6	103.0

資料: 附表에서 作成.

<第5·1·4(2)表> 産業別常雇 (單位:千人)

年 度	産 業	I' (鑛+電+運+서)	II' (製 造)	III' (農+建+商)
1963		1,309	632	6,016
1964		1,403	671	6,141
1965		1,489	792	6,222
1966		1,597	857	6,205
(1966/1963) × 100		122.0	135.6	103.1

資料: 附表에서 作成.

이에서 알수 있는 바와같이 雇傭者 比率이 높은 産業(I 및 I')에서 보다는 그 比率이 中間的인 産業(II 및 II')에서 就業者의 增加가 더 크게 일어난 셈이다.

다음에 從事上의 地位別로 就業者數의 變化를 보기로 하자.

1963年과 1966年을 比較하면 總數는 7,947千人에서 8,659千人으로 9%, 雇傭者는 2,496千人에서 2,887千人으로 15.7% 增加한데 대해서 自營業主는 2,952千人에서 3,133千人으로 6.1%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고 家族從事者는 2,497千人에서 2,887千人으로 5.7%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는데 不過하다(第5·1·5表). 앞에서 經濟成長에 比較서 雇傭增加는 微微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常雇와 日雇의 增加는 크지만 全體의 69.2%나 되는 自營

<第5·1·5表> 從事上의 地位別 構成 (單位:千人, %)

從事上의 地位	年 度	1963(A)	1966(B)	(B/A) × 100	B - A
自營業主		2,952	3,133	106.1	181(25.4)
家族從事者		2,497	2,639	105.7	142(20.0)
雇傭者		2,496	2,887	115.7	391(54.6)
常雇		974	1,300	133.5	326(45.7)
臨雇		1,007	944	93.7	△63(△9.1)
日雇		515	643	124.7	128(18.0)
計		7,947	8,659	109.0	712(100.0)

資料: 第3·6(1)表에서 作成.

業主와 家族從事者の 增加가 이와 같이 작은데 基因한다.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の 雇傭增加는 停滯狀態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1963年에서 1966年까지 사이에 就業者의 增加數는 712千人인데 그中에서 雇傭者의 增加는 391千人으로서 全體의 增加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第 5·1·5 表).

이때문에 就業者中에서 차지하는 雇傭者의 比率은 1963年의 31.5%에서 1966년에는 33.3%가 되었다(第 3·6(1) 表).

따라서 雇傭者의 比率은 그간 別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7年의 『經濟白書』는 1963~1966年 期間中에 雇傭狀態가 크게 好轉되었다<sup>(20)</sup>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以上과 같은 分析을 行하지 않고 내린 皮相的인 結論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大體로 우선 不完全就業者로 看做해도 無妨한 6月과 12月의 就業者數의 差를 보면 그것은 家族從事者の 急激한 增加로 해서 1966년에는 도리어 1963年보다 더 增加하고 있다(第 5·1·6 表). 元來 이것은 經濟成長에 따라서 減少하여야 한다.

이밖에 賃金格差의 縮小與否를 통해서도 雇傭構造의 近代化與否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2에서 다루어 진다.

< 第 5·1·6 表 >

從事上の地位別 就業者

(6月과 12月の 差)

(單位: 千人)

從事上の地位	年度	1963	1964	1965	1966
自營業主		642	785	749	728
家族從事者		1,753	2,298	2,395	2,421
雇傭者		444	450	144	283
常雇		53	△5	△29	△111
臨雇		△134	△31	△25	△9
日雇		525	486	198	403
計		2,840	3,533	3,288	3,432

資料: 第 3·6(2) 表에서 作成.

## 2. 經濟成長과 賃金

Kaldor<sup>(21)</sup>는 다음과 같이 經濟成長과 資本蓄積에 따라서 賃金分配率의 增加가 可能함을 提示하고 있다.

$$\frac{P}{Y} = \frac{1}{1-c} \frac{I}{Y} \quad (5 \cdot 2 \cdot 1)$$

(20)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67) p. 123.

(21) N. Kaldor, *Essays on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1960, pp. 251-252.

但  $P, Y$  및  $I$ 는 各各 利潤, 所得 및 投資支出이며  $c$ 는 利潤의 消費率 즉 資本家の 消費性向이다.

<第 5·2·1 表> 主要國의 經濟成長率과 賃金增加率

國 名	經濟成長率 (1960~64年平均)	賃金增加率 (1960~64年平均)	國 名	經濟成長率 (1960~64年平均)	賃金增加率 (1960~64年平均)
美 國	4.0	4.7	필 리 핀	4.2	2.7
英 國	3.8	6.1	臺 灣	10.5	10.0
프 랑 스	5.8	7.9	버 어 마	4.6	2.5
이 탈 리 아	5.9	10.4	印 度	4.8	3.1
日 本	11.5	9.6			

資料 :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1965)과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66)에서 作成.

그러나 그에 依하면

$$\frac{I}{Y} = Gv$$

이므로 이 (5·2·1)式은

$$\frac{P}{Y} = \frac{1}{1-c} Gv \quad (5 \cdot 2 \cdot 2)$$

로 된다. 但  $G$ 는 (企業家의) (平均)豫想市場擴張率 즉 經濟成長率이며  $v$ 는 資本係數이다.

<第 5·2·2 表> 鑛工業生產從業員實質賃金趨勢(月平均) (單位: 원)

年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0年對1966年對 增減比率	1966 1962 × 100	1966 1963 × 100
鑛 業	3,900	4,070	4,219	3,827	3,456	3,757	3,883	△0.4	92.0	101.5
製造業	2,600	2,627	2,595	2,381	2,233	2,299	2,386	△8.2	91.9	100.2

資料 : 韓國銀行, 『調査月報』(1967. 8)

註 : 經常價格을 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이 (5·2·2)式은 結局 利潤分配率이 (i) 經濟成長率 (ii) 資本係數 (iii) 資本家の 消費性向의 세가지에 依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  $v=4$ , 年當  $G=3\%$ ,  $c=50\%$ 라고 하면  $\frac{I}{Y}$ 는  $12\%(4 \times 3\%)$ 이며 따라서 利潤分配率  $\frac{P}{Y}$ 는  $24\%$ 가 된다. 故로  $Y-P=W$  즉  $1 - \frac{P}{Y} = \frac{W}{Y}$ 에서 賃金分配率<sup>(22)</sup>  $\frac{W}{Y}$ 는  $76\%$ 가 된다. 그리고 또  $v=4$ , 年當  $G=3\%$   $c=66\frac{2}{3}\%$ 라고 하면  $\frac{P}{Y}$ 는  $36\%(3 \times 12\%)$ 가 되며 따라서  $\frac{W}{Y}$ 는  $64\%$ 가 된다. 이에서  $c$ 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資本蓄積이 行해지면 行해질수록 賃金分配率이 커짐을 알 수 있

(22) 이  $W/Y$ 의 逆數에서 1을 뺀  $(Y-W)/W$ 는 Marx의 剩餘價值率  $m/v$  (但  $m$ 은 剩餘價值  $v$ 는 可變資本)와 같다.

다. (23) (24) 勿論 賃金分配率이 增加한다는 것과 賃金水準이 커진다는 것은 一致하지 않는다. 즉 賃金分配率이 크다는 것은 반드시는 高賃金水準을 意味하지 않으며 또 賃金分配率이 작다는 것은 반드시는 低賃金水準을 意味하지 않는다. 好況期에 個人的 賃金水準은 增加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勞動者總平均의 賃金水準은 低下하고 있는 現象을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好況期에 있어서의 強한 勞動需要가 年少未熟練하고 低賃金水準의 者를 多數 雇傭하여 勞動者의 年齡 熟練別의 構成을 一變시킨데 基因하는 現象이며 就業者와 關聯해서 일어난 것이다. 賃金所得을 考察할 때에는 賃金水準과 就業者數를 考慮하여야 한다.

또 日本에서의 研究結果는 賃金分配率이 (i) 長期에 巨한 日本의 物價騰貴率이 各國에 比해서 相當히 높기 때문에 強制貯蓄의 現象을 發生시킨 것 (ii) 賃金水準의 變動이 顯著히 硬直의이기 때문에 特히 好況期에 있어서의 實質賃金の 低下와 賃金分配率의 低下가 있었던 것 (iii) 勞動의 供給源인 農村의 生活水準이 낮은 것 및 低米價가 겹쳐서 低賃金水準을 招來하여 賃金分配率이 顯著히 낮아진 것의 세가지에 基因해서 低位에 머물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5)

그리고 또 賃金分配率이 低下해도 勞動生産性이 높으면 1人當賃金은 높아질 수 있으며 거꾸로 勞動分配率이 上昇해도 勞動生産性이 낮으면 1人當賃金은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rac{W}{N} = \frac{W}{Y} \cdot \frac{Y}{N}$$

이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事實은 第5·2·1表가 大體로 立證해 주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 表에 依하면 經濟成長率은 日本과 中國(臺灣)이 높고 英國이 가장 낮은데 賃金增加率에 있어서는 日本과 臺灣이 높은 것만은 事實이지만 英國이 가장 낮지 않고 도리어 「버어마」가 가장 낮다. 그러나 大體로 經濟成長率이 並行한다는 것은 事實이다.

다음에 經濟成長率에 따라서 賃金格差는 縮小되어 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事實 大企

(23) 製造業에 關한 것을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Arrow-Chenery-Minhas-Solow의 論文에도 經濟成長을 資本勞動比率의 增加로 看做한다면 經濟成長에 따라서 賃金分配率이 增加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K. J. Arrow, H. B. Chenery, B. S. Minhas, and R. M. Solow, "Capital-Labor Substitution and Economic Efficien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1, p. 246.).

(24) 그러나 經濟發展의 段階에 따라서 賃金分配率이 低下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사람도 있다. (川口弘, 嘉治元郎 編, 『成長過程の經濟政策』, p. 174)

(25) 中山伊知郎編, 『賃金基本調査』, p. 70

業을 100으로 한 小企業의 賃金은 英國에서 82.5%(1949年), 西獨에서 81.7%(1954年)이다. (26) 그러나 美國에서는 그것이 63%(1954年)이다. 따라서 經濟成長과 賃金格差의 縮小은 並行하는 것만은 事實이지만 最低賃金制의 採擇與否, 社會保障制의 確立與否, 勞動組合의 活動程度등에 따라서 그 關係가 修正되는 수가 있다.

以上이 經濟成長과 賃金의 關係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第 5·2·3 表> 物價指數와 賃金指數(1960=100) (單位: %)

年 度	서울消費者 物價指數		鑛業 賃金指數		製造業 賃金指數	
	指 數	對前年騰貴率	指 數	對前年騰貴率	指 數	對前年騰貴率
1960	100.0	—	100.0	—	100.0	—
1961	108.1	9.1	128.8	12.8	109.2	9.2
1962	115.2	6.6	124.6	10.5	115.0	5.3
1963	138.0	20.7	146.4	9.5	127.3	10.7
1964	180.0	29.5	159.5	16.9	154.6	21.4
1965	204.4	13.6	196.9	23.4	180.8	16.9
1966	229.7	12.4	228.7	16.2	210.8	16.6
1962~66年間平均	—	16.6	—	15.3	—	14.2

資料: 國務總理企劃調整室, 『第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評價報告書』

<第 5·2·4 表> 被傭者報酬의 構成比 (單位: %)

年 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分配國民所得 家計와 民間 非營利 團體 經常收支	37.2	34.1	36.6	31.2	28.4	30.8	32.5
	37.7	34.7	37.6	31.9	28.8	31.5	33.0

資料: 韓國銀行, 『調查月報』(1967. 7)

第 5·2·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1966 年期間中에 鑛業과 製造業의 實質賃金은 各 各 8.0%와 9.1% 減少하고 있다. 그리고 또 第 5·2·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期間中에 데 플레이터인 서울消費者物價指數는 平均해서 16.6% 增加한데 대해서 鑛業은 15.3% 增加하고 있고 製造業은 14.2%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鑛業과 製造業의 實質賃金은 各 各 減少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雇傭者報酬의 構成比도 1962 年에 36.6%이던 것이 1966 年에 32.5%로 減少하고 있다. 이와같은 被傭者報酬構成比의 低下는 主로 賃金分配率을 低下시키는 諸要因 즉 物價上昇이 相當히 높았던 것, 賃金水準의 變動이 相當히 硬直적인 것, 勞動의 供給源인 農村의 生活水準이 낮은 것과 低米價가 겹쳐서 低賃金水準을 招來한 것등에 基因한다. 그리고 實質賃金의 低下는 主로 被傭者報酬構成比의 低下와 低賃金水準

(26) 小島健司, 『日本の賃金』, p. 55.

雇傭者의 雇傭이 增加한 것이 檢친 것과 物價上昇率이 相當히 높았던 것에 基因한다.

第5·2·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就業者 1人當 實質被傭者報酬도 그 增加率이 經濟成長率보다 낮다. 즉 1人當被傭者報酬는 實質的으로 低下했다.

끝으로 第5·2·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規模別 賃金格差는 1962~1966年期間中에 鑛業의 경우에는 縮小되었지만 製造業의 경우에는 도리어 擴大되었으며 平均의 경우에도 마찬

〈第5·2·5表〉 就業者 1人當 實質被傭者報酬 (單位: 원, %)

產 業	年 度						1963~66 平 均	1966 1962 × 100	1966 1963 × 100
	1960	1962	1963	1964	1965	1966			
第1次産業	—	2,708	2,769 (2.3)	3,155 (13.9)	3,177 (0.7)	3,331 (4.8)	5.4	123.0	120.3
第2次産業	—	30,545	33,891 (11.0)	36,193 (6.8)	32,675 (△9.7)	38,235 (17.0)	6.3	125.2	112.8
第3次産業	—	29,496	25,897 (△12.5)	22,481 (△13.2)	22,888 (1.8)	26,839 (17.3)	△1.7	91.0	103.2
計	9,413	12,144 (0.3)	12,176 (△1.0)	12,051 (4.7)	12,612 (17.0)	14,761	5.3	121.5	121.2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와 韓國銀行, 『調查月報』(1967. 7)에서 作成.

註: (1) 就業者 1人當 被傭者報酬를 서울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國民總生産의 (1966/1963) × 100은 131.9이며 經濟成長率의 1963~1966年平均은 9.5임.

〈第5·2·6表〉 鑛業 및 製造業의 規模別賃金(月當) (單位: 원, %)

規 模	鑛 業		製 造 業		平 均	
	1962	1966	1962	1966	1962	1966
30~49人	2,658(40.0)	5,907(53.6)	2,608(71.1)	4,312(58.4)	2,612(60.0)	4,410(53.5)
50~99人	2,747	5,438	2,946	4,839	2,920	4,905
100~199人	3,923	6,901	2,924	5,838	3,103	6,202
200~499人	3,556	6,473	3,389	5,928	3,427	5,987
500人 以上	6,687(100.0)	11,008(100.0)	3,671(100.0)	7,385(100.0)	4,367(100.0)	8,240(100.0)

資料: 韓國生産性本部, 『生産性研究』第10輯 및 第64輯.

註: ( ) 是 百分比

〈第5·2·7表〉 鑛業 및 製造業의 業種別賃金(月當) (單位: 원, %)

業 種	年 度		
	1962	1966	
鑛 業	非金屬鑛業	2,660(48.3)	4,870(46.4)
	石炭鑛業	5,510(100.0)	10,480(100.0)
製 造 業	紡織業	2,460(46.1)	—
	皮革 및 同製品	—	3,500(41.8)
	印刷 및 出版業	5,120(100.0)	8,350(100.0)

資料: 韓國銀行, 『調查月報』(1967. 8)

가지로 擴大되었다. 그리고 또 業種別賃金格差도 擴大되었다(第 5·2·7表).

이것은 우리가 皮膚로 느낄 수 있는 近代的 産業과 傳統的 産業의 區別的 顯著化 즉 二重構造의 顯著化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VI. 結 論

V까지에서 다음의 것을 찾아냈다.

(1) 1962~1966年 期間中에 年平均 8.3%의 相當히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했다.

그리고 製造業은 經濟成長의 先導의 役割을 行했다. 그러나 同期間의 1人當 國民總生産 年平均增加率は 5.5%이며 1963~1966年 期間中の 就業者 1人當國民總生産 年平均增加率は 7.3%이다.

(2) 첫째로 1966年의 産業別就業者構成에 있어서는 第1次産業은 57.8%, 第2次産業은 13.3%, 第3次産業은 2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農林業이 斷然 큰 構成比를 갖고 있으며 製造業, 商業, 서비스業등의 그것도 相當히 크다. 이들은 全産業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들 産業에서는 零細規模 乃至 中小規模의 經營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가 總就業者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65%를 超過한다. 즉 雇傭者의 比率은 35%未滿이다. 産業別로 보면 第1次産業은 家族從事者·自營業主型이고 第2次産業은 雇傭者型이고 第3次産業은 雇傭者·自營業主型이다.

셋째로 1966年의 完全失業率은 7.1%이며 完全失業者數는 666千人이다. 이것은 比較的 작은 數이다. 그러나 完全失業者의 特殊性을 생각할 때 그 數가 比較的 작다는 것은 결코 雇傭狀態가 良好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各 産業에 걸쳐서 廣範하게 完全不就業者層 或은 潜在的 失業者層이 存在하고 있다.

結局 우리나라의 雇傭狀態는 한 極에는 完全就業者가 있고 다른 極에는 完全失業者가 있고 그 中間에 不完全就業者層이 相當히 廣範하게 存在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不完全就業者數는 어떻게 보아도 300萬을 超過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雇傭構造는 非近代的 乃至 後進의이다. 이것은 雇傭者의 比率이 낮은 것, 不完全就業者層이 많은 것, (다음에서 說明되지만) 賃金格差가 큰 것의 세가지를 通해서 알 수 있다.

同時에 우리나라의 雇傭構造는 二重의이다.

(3) 첫째로 우리나라의賃金은低賃金이다. 이것은 龐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 不完全한 勞動市場, 貧困의 惡循環, 勞動組合의 未結成 乃至 그 活動의 不活潑등에 基因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賃金은 規模別로나 業種別로나 相當히 큰 格差를 갖고 있다. 規模別賃金格差는 生産性格差, 中小企業의 特殊性,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存在하는 勞動力의 質的 差異등에 基因하며 業種別賃金格差는 必要로 하는 勞動과 技術의 差異에 基因한다. 結局 賃金格差는 二重構造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4) 첫째로 經濟成長率이 크면 雇傭增加率도 크게 되어 있다. 둘째로 經濟成長에 따라서 第1次産業人口의 比重은 低下하고 第2次, 第3次産業 특히 第3次産業人口는 增大한다. 그간의 雇傭增加는 極히 微微하다. 다음에 第3次産業人口率이 높아진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雇傭者比率를 基準으로 해서 全産業을 再分類하여 各 産業의 就業者數의 變化를 본다든가 從業上의 地位別 就業者數의 變化를 본다든가 할 때에는 이 事實을 歐西式으로 雇傭構造의 近代化의 指標로 看做하는 데에는 問題가 있다.

끝으로 不完全就業者數는 도리어 增加하고 있다. 이것은 主로 經濟活動人口增加의 壓力에 基因한다.

(5) Kaldor 에 依하면 經濟成長과 資本蓄積에 따라서 賃金分配率은 커진다. 勿論 賃金分配率이 크다고 해서 1人當賃金이 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勞動生産性만 增加하면 設使 賃金分配率이 低下하더라도 1人當賃金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經濟成長에 따라서 賃金分配率과 1人當賃金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經濟成長에 따라서 賃金格差는 縮小해간다.

그런데 1962~1966年 期間中에 被雇傭者報酬의 構成比 즉 賃金分配率과 鑛業 및 製造業의 實質賃金은 各各 低下하고 있다. 그리고 就業者1人當 實質被傭者報酬도 低下하고 있다. 다음에 規模別로나 業種別로나 賃金格差는 擴大하고 있다. 이것은 主로 二重構造의 顯著化에 基因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不完全就業者層이 相當히 많다. 이 不完全就業者層이 많은 것은 雇傭構造가 非近代의인데 基因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低賃金과 큰 賃金格差라는 賃金の 畸型性을 招來하는 原因이기도 하다. 따라서 雇傭構造만 近代化되면 不完全就業者層은 解消될 것이며 따라서 賃金の 畸型性도 除去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非近代의인 雇傭構造가 繼續되는 큰 原因의 하나는 人口 或은 勞動力人口의 增加에 比해서 經濟成長이 不充分한데 있다. 萬若 近代의 産業部門의 成長率이 크고 이 部門에서 農業이라든가 商業, 中小企業으로부터 大量의 勞動力을 吸收할 수 있다면 農業, 商



業, 中小企業部門의 雇傭構造의 近代化는 進行될 것이다.

結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높은 經濟成長率을 持續시키느냐가 雇傭構造의 近代化, 不完全就業層의 解消, 賃金の 畸型性의 除去를 위한 關鍵이 되는 셈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不斷히 過剩人口의 壓力을 받고 있다. 故로 더욱 더 高度成長의 持續이 切實히 要請된다. 그뿐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經濟成長과 就業增加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지만 經濟成長率이 큰 發展의 經濟에서는 그것이 一致한다.

그러면 높은 經濟成長率의 基本動因은 무엇인가? 勿論 이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見解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亦是 그것은 높은 投資水準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投資의 急激한 增大는 인플레이와 國際收支惡化의 危險을 隨伴함으로써 도리어 長期的으로는 經濟成長率을 낮추게 되어 完全雇傭의 達成을 遲延시킨다. 따라서 長期的인 成長政策의 目標은 經濟成長의 極大化와 安定化를 어떻게 調和시키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安定的 成長을 위해서는 貯蓄의 範圍內에서의 投資가 必要하므로 結局 貯蓄의 增大 즉 資本蓄積이 關鍵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높은 資本蓄積을 통한 높은 安定的 成長 바로 이것이 長期的으로 본 우리나라의 雇傭政策의 基本線이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長期的으로 본 우리나라의 賃金政策의 基本線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높은 安定的 成長은 결코 Reynolds의 主張에 沿해서 追求되는 것은 아니다. Reynolds는 그의 한 論文가운데서 “西歐式으로 組織된 工業 그리고 특히 보다 큰 低開發國에서 流行하고 있는 重工業은 그다지 勞動使用的이 아니다. …………… 工業內部에서는 今日까지 日本經濟에서 追求되어 왔고 또 實質적으로 高度成長에 寄與한 小規模의 보다 分權의인, 보다 勞動使用的인 形態의 組織을 찾아내야 한다. 또 어느 一定한 點까지는 보다 勞動使用的인 技術이 生産增加的이라는 것을 表示할 수 있다. 豊富한 勞動供給을 使用하는 方向으로 마련되지 않은 開發政策은 또 國民生活를 擴大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그가 같은 部分에서 “工業部門 外部에서 즉 勞動節約의이기 보다는 土地節約의인 새 技術이 過剩勞動을 吸收할 수 있는 農業, Nurkse의 主張에 沿해서 組織된 勞動集約的 公共事業 및 資本投資보다는 主로 教育과 組織을 必要로 하는 其他方向에서 就業機會를 보다 더 精力的으로 追求하여야 한다”고 한 말에 全的으로 贊成하면서도 異議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見解는 너무나도 近視眼的이기 때문이다. 亦是 長期的으로 보면 現代工場式 工業과 特

(27) L. G. Reynolds, "Wages and Employment in the Labor-Surplus Econom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5, p. 38.

히 重工業의 發展이 重視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安定的 成長은 다음아닌 現代工場式 工業과 特히 重工業의 發展을 重視하는 Reynolds의 主張에 沿해서 追求되는 그것이다. 結局 이런 式의 높은 安定的 成長을 長期的으로 追求해 가면서 不完全業就者層의 解消와 새로이 追加되는 勞動力의 吸收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不完全業就者層이 大量으로 存在하는 것은 그 經濟라든가 社會의 近代化가 뒤늦은 데에도 基因한다면 그들의 解消를 위해서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農業, 商業, 中小企業 같은 部門 自體의 近代化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生産性的 向上은 經濟成長을 招來하기도 하지만 또 經濟成長에 의해서 招來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IV에서 본 바와 같이 또 第6·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明히 그것은 賃金の 增加를 招來한다.

<第6·1表> 生産性向上 結果의 國際比較\* (1953年=100)

國 別	勞動生産性 (時間當)	生 産	名目賃金 (時間當)	實質賃金 (時間當)	雇 傭	勞動時間
西 獨	133	165	148	132	131	95
美 國	122	114	126	116	94	99
이 탈 리 아	152	159	132	117	105	99
日 本	144	220	131	132	148	103

資料 : 『エコノミスト』 1961年 6月 27日號, p. 15.

註 : \*이것이 어느 年度의 것인지 分明치 않음.

그리고 또 第6·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明히 그것은 雇傭의 增加와 勞動時間의 短縮을 招來한다. 그러나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獨逸의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生産性的 向上의 tempo가 賃金の 增加의 tempo보다 훨씬 빠를 뿐 아니라 雇傭이 거꾸로 減少하고 있거나 或은 雇傭의 增加의 tempo가 生産성이 向上의 tempo보다 대단히 緩慢한 경우가 있으며 또 勞動時間이 短縮되지 않고 도리어 增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IV에서 말한 바와 같이 尙大한 過剩勞動力을 갖고 있다. 따라서 生産性的 向上의 tempo가 賃金の 增加의 tempo 보다 훨씬 빠를 뿐 아니라 雇傭의 增加의 tempo가 生産性的 向上의 tempo보다 훨씬 緩慢하거나 或은 雇傭이 減少할 可能性이 있으며 또 勞動時間의 增加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이 點을 事前에 防止하는 措置를 講究하면서 生産性的 向上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 (28) 生産性向上의 成果에 대한 어떤 措置를 隨伴하는 生産性的 向上 바

(28) 「프랑스」에는 生産性的 向上에 의해서 從業員의 解雇 或은 報酬의 引下를 行할 수 없으며 企業은 生産性向上의 成果를 從業員 全體에 配分할 것과 企業의 生産轉換, 移動에 의한 失業을 保障하

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生産性的 向上이다.

Ⅳ에서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지 않거나 或은 그 活動이 活潑치 못한 것도 直接 間接으로 우리나라 賃金の 畸型性的 原因이 되고 있음을 보았다. 또 Ⅳ에서 우리나라의 賃金은 先進國의 그것과 比較할 것 없이 우리나라와 同一한 處地에 놓여 있는 ECAFE地域의 後進國과 比較해 보아도 낮은 편임을 보았다. 거기에 더해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賃金格差는 相當히 크다. 現在の 實情으로 보아 大企業의 賃金마저 勞動力의 再生産을 겨우 可能케 할까 말까의 水準으로 定해지고 있는 것이 事實일진대 中小企業의 勞動者에게는 勞動力의 再生産을 保障할만한 賃金도 支拂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나마 이와 같은 低賃金を 確保하기 위해서 無理한 勞動을 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勞動組合의 結成促進과 그 活動의 活潑化<sup>(29)</sup>, 그리고 最低賃金制<sup>(30)</sup>의 實施등도 積極的으로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情에서 볼 때 어떠한 雇傭政策이나 賃金政策도 短期的으로는 별로 커다란 成果를 올리지 못할 것이고 長期的으로 비로소 成果를 올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現在 必要的인 것은 長期的으로 본 雇傭政策이나 賃金政策의 基本線을 제대로 設定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所長·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며 失業에 대한 職業輔導, 勞動移動에 必要的인 住宅施設을 保障할 것의 두 가지를 規定하는 立法措置가 取해져 있다.

- (29) 極端한 低賃金이 經營의 不合理, 例컨대 社用族的인 浪費 등을 招來하고 있는 경우에는 賃金の 引上이 이와같은 不合理을 없애는 壓力이 될 수 있으며 또 低賃金이 低코스트를 通해서 輸出促進을 可能케 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앞으로의 輸出展望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賃金の 引上을 通해서 國內의 購買力의 增加를 圖謀하는 것이 國內生産을 위해서 有利할 것이므로 勞動組合의 結成促進과 그 活動의 活潑化의 圖謀는 이러한 면에서도 意義를 갖고 있다.
- (30) 多幸히도 우리나라의 勤勞基準法은 最低賃金規定을 갖고 있다.

< 附 表 >

産業 및 從事上의

從事上의 地位	農業 林業 狩獵業 및 漁業						鑛業 및 採石業					
	計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1963年	5,029	2,030	2,249	66	147	537	58	5	—	31	9	13
平均	(100.0)	(40.4)	(44.7)	(1.3)	(2.9)	(10.7)	(100.0)	(8.7)	—	(53.4)	(15.5)	(22.4)
1964年	5,085	2,014	2,370	52	160	489	56	2	—	27	18	9
平均	(100.0)	(39.6)	(46.6)	(1.0)	(3.2)	(9.6)	(100.0)	(3.6)	—	(48.2)	(32.1)	(16.1)
1965年	5,001	1,977	2,321	74	198	431	81	3	—	32	19	27
平均	(100.0)	(39.5)	(46.4)	(1.5)	(4.0)	(8.6)	(100.0)	(3.7)	—	(39.5)	(23.5)	(33.3)
1966年	5,013	2,000	2,299	77	181	456	83	3	1	27	23	29
平均	(100.0)	(39.9)	(45.9)	(1.5)	(3.6)	(9.1)	(100.0)	(3.6)	(1.2)	(32.5)	(27.7)	(35.0)

從事上의 地位	電氣 가스 水道 및 衛生施設 서비스業						商 業					
	計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1963年	25	4	—	13	4	4	786	561	136	49	21	19
平均	(100.0)	(16.0)	—	(52.0)	(16.0)	(16.0)	(100.0)	(71.4)	(17.3)	(6.2)	(2.7)	(2.4)
1964年	14	1	1	9	2	1	862	612	164	38	30	18
平均	(100.0)	(7.1)	(7.1)	(64.4)	(14.3)	(7.1)	(100.0)	(71.0)	(19.0)	(4.4)	(3.5)	(2.1)
1965年	19	2	—	10	2	5	976	684	178	66	30	18
平均	(100.0)	(10.5)	—	(52.7)	(10.5)	(26.3)	(100.0)	(70.1)	(18.2)	(6.8)	(3.1)	(1.8)
1966年	22	2	—	14	3	3	979	669	175	79	30	26
平均	(100.0)	(9.1)	—	(63.7)	(13.6)	(13.6)	(100.0)	(68.3)	(17.9)	(8.1)	(3.6)	(2.6)

資料：經濟企劃院

地位別 就業者

(單位：千人)

產 業	製 造 業						建 設 業						
	從事上の地位	計	自營業主	家族従事者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業主	家族従事者	常雇	臨雇	日雇
1963年		632	165	65	196	125	81	201	24	10	9	20	138
平均		(100.0)	(26.1)	(10.3)	(31.0)	(19.8)	(12.8)	(100.0)	(11.9)	(5.0)	(4.5)	(10.0)	(68.6)
1964年		671	187	80	184	154	66	194	26	4	10	13	141
平均		(100.0)	(27.9)	(11.9)	(27.4)	(23.0)	(9.8)	(100.0)	(13.4)	(2.1)	(5.2)	(6.7)	(72.6)
1965年		792	212	73	274	159	74	245	40	15	14	16	160
平均		(100.0)	(26.8)	(9.2)	(34.6)	(20.1)	(9.3)	(100.0)	(16.3)	(6.1)	(5.7)	(6.5)	(65.4)
1966年		857	213	88	314	164	78	213	27	7	15	12	152
平均		(100.0)	(24.9)	(10.3)	(36.6)	(19.1)	(9.1)	(100.0)	(12.7)	(3.3)	(7.0)	(5.6)	(71.4)
產 業	運輸 保管 及 通信業						サービス業						
	從事上の地位	計	自營業主	家族従事者	常雇	臨雇	日雇	計	自營業主	家族従事者	常雇	臨雇	日雇
1963年		117	17	4	64	18	14	1,109	158	34	546	171	200
平均		(100.0)	(14.5)	(3.4)	(54.7)	(15.4)	(12.0)	(100.0)	(14.2)	(3.1)	(49.2)	(15.4)	(18.1)
1964年		161	28	4	67	36	26	1,172	162	46	585	214	165
平均		(100.0)	(17.4)	(2.5)	(41.6)	(22.4)	(16.1)	(100.0)	(13.8)	(3.9)	(49.9)	(18.3)	(14.1)
1965年		195	35	6	87	38	29	1,194	177	61	571	245	140
平均		(100.0)	(17.9)	(3.1)	(44.6)	(19.5)	(14.9)	(100.0)	(14.8)	(5.1)	(47.9)	(20.5)	(11.8)
1966年		180	35	3	94	30	18	1,312	188	63	678	203	180
平均		(100.0)	(19.4)	(1.7)	(52.2)	(16.7)	(10.0)	(100.0)	(14.3)	(4.8)	(51.7)	(15.5)	(13.7)